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마음의 통합*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이 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접촉 공간으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갖는 성격을 검토한 이후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마음의 통합문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마음의 통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여자 - 수혜자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남한의 우월의식과 북한의 패배의식이 깔려 있었다. 둘째, 가치의 차원에서는 남북한 마음의 체계가 비교적 조화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셋째, 사고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남북 간 마음체계 간에 적지 않은 긴장이 조성되었다. 넷째, 대북지원이라는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의 특성이 비교적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접촉의 대상에 따른 마음체계 상호작용의 양상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북한 지원 활동을 하는 NGO의 경우에도 조직단체별로 차별성이 적지 않았다. 여섯째, 접촉이 반복되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체계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것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접촉지대로서 대북지원이 갖는 특성은 남북주민들의 마음체계 상호작용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분단 이후 지속된 적대적 대결관계와 체제 차이에서 비롯된 마음체계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선입견과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138).

정치적인 차원의 남북관계의 영향력은 대부분의 접촉 공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접촉지대와는 달리 공동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 목적이 있다는 사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북지원 실무자와 관련 사업 전문가들이 결합되는 접촉 공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접촉지대로서 NGO 대북지원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중요한 현상으로 통일 과정 특히 사회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대북지원 공간에서의 마음체계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 과정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지원에 참여한 남북한 주민들을 모두 조사 분석하여야 하지만 이 글은 남쪽 참여자들만을 면접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북지원이라는 접촉지대의 북한 주민들을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북 인도적 지원, 접촉지대, 마음체계, NGO 대북지원, 마음의 통합

1. 머리말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부침을 반복해왔다. 전쟁을 경험하고 극단적인 대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지속되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접촉이 이루어져왔다. 7·4공동성명, 6·15 및 10·4 공동선언을 포함한 최고위급의 정치적인 협상도 있었고, 기본합의서로 대변되는 다양한 수준의

남북 간 합의도 이루었다. 이러한 접촉은 주로 남북 당국 간 그리고 정치적 차원의 것으로서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연결되었고, 점진적이지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사회문화교류 차원까지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된 대북지원 활동이다.¹⁾

대북지원 활동이 활성화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이라고 할 수 있다.²⁾ 아사자만 100여만 명이라고 추산되는 북한 상황을 접하면서 남한 사회에서는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북한 지원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는 보편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전된 남한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987년 체제의 또 다른 측면, 즉 성장한 시민사회의 존재도 대북지원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³⁾

1) 여기서 대북지원 활동이라 함은 남한의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여 온 북한에 대한 식량, 의약품 제공과 보건·교육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의미한다.

2) ‘고난의 행군’ 시기는 좁게는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일인 1994년 하반기부터 1997년까지를 말하나, 넓게는 북한의 체제위기 기간인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후반까지를 의미한다.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2005), 9~11쪽. 고난의 행군과 관련된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이상립, “고난의 행군기 이후의 북한 내 인구가동: 도시-농촌 간 인구가동,”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2013), 29~60쪽 참조.

3)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등을 포함한 6·29선언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민주주의 제도들이 복원된 헌법 개정으로 형성된 정치체제. 조희연, “수동혁명적 민주화 체제로서의 87년 체제, 복합적 모순, 균열, 전환에 대하여: 87년 체제, 97년 체제, 포스트민주화체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24

민주화의 중심이었던 시민사회 세력들은 1987년 체제가 성립된 이후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으로 방향을 정한 조직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종교단체 등과 연대하면서 대북지원 활동의 주축이 되었다.

초기에 긴급 구호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시작되었던 대북지원 활동은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으로 기저가 바뀌면서 양과 질에서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대북지원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구하였던 이명박 정부 이후 이들의 활동이 주춤해졌다고는 하나 15년이 넘는 동안 이루어진 남한 시민사회의 대북지원 활동은, 기존의 남북관계에서 국가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 남북관계 전환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와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북한의 식량 및 보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 여부와 같은 지원의 효율성 문제 그리고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한 사회 내 사회갈등 문제 등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⁴⁾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남북관계와 사회문화교류의 사례로서 그리고 대북정책의 차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북지원이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 공간이 된다는 점이다. 대북지원을 추진하면서

호(2013), 139~149쪽 참조.

- 4) 인도적 지원의 전반적 현황에 대해서는 김정수,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2010), 211~218쪽 참조.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양문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제·사회적 효과,” 『동향과 전망』, 70호(2007), 243~272쪽;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4) 참조.

<표 1> 대북지원 관련 면접 대상자 목록

성명	소속/ 직위	인터뷰 날짜
L1	국제인도단체한국지부 / 부장	2014.3.20
Y1	국내 대북지원단체 / 실장	2014.3.06
P1	통일관련단체 / 국장	2014.3.12
L2	통일관련단체 / 처장	2014.3.13
S1	대북지원단체 / 부장	2014.3.17
K1	대북지원단체 / 처장	2014.3.05
H1	대북지원단체 / 국장	2014.3.28
U1	대북지원단체 / 총장	2014.3.19

시작된 남북한 실무자들의 협상 공간은 물론이고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지원 현장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수준의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접촉은 과거에는 가져 보지 못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대북인도적 지원 현장을 남북한 주민의 마음이 만나는 ‘접촉 공간’으로 상정하고 여기서 남북한의 마음들이 어떻게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다시 남북한 주민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⁵⁾

먼저 대북인도적 지원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접촉 공간으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닌 성격을 검토한 이후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통합문제를 분석하는 순서로 이 글을 구성할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지원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후원자

5)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에 대해서는 양문수·윤철기, “북한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연구를 위한 시론,”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2013) 참조.

로서 북한을 방문하였던 일반 시민들의 참여기 등의 문건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주요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들도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15년이 넘는 동안 대북지원 활동이 지속되었고, 이 결과 많은 관련 단체들이 생겼지만, 중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단체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어린이 어깨동무’, ‘월드비전’ 그리고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이다.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대북지원 활동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포괄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민족화해중앙협의회’, ‘한반도평화포럼’ 관계자의 증언도 참조하였다. 각각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체계(mind system)가 만나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이 연구의 골자이다. 이러한 형태의 접촉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닌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2. 접촉지대로서 대북인도적 지원

접촉지대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무엇이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가’라는 고전적 사회통합 논의를 ‘미시적 수준’에서 고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거시적 수준에서 체제의 지배 정당성이 사회구성원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는 ‘체제통합(system integration)’과 개인 및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성의 증가인 ‘사회활동의 통합(societal integration)’

<표 2> 남북한의 접촉지대

장소 \ 제도	제도화	비제도화
경계	(1) 남북협상	(2) 북방한계선(NLL)
영토	남한	(3) 탈북자 거주 지역
	북한	(4) 비공식 부문 탈북자
	해외	(5)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6)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7) 유엔, 6자회담
		(8) 탈북자의 해외 거주 지역

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Giddens, 1982: 92~93),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 사회통합의 미시적 기초를 밝히는 연구이다.⁶⁾

남북한의 접촉지대는, ‘장소(place)’로서의 ‘지리적 공간’과 ‘공간의 제도화’ 존재 유무라는 두 변수를 사용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변수인 장소는, 남북한의 ‘경계’ 그리고 경계에 의해 공간이 확정 되는 ‘영토’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영토는, 또한 남북한 각각의 영토 내부 그리고 해외의 장소를 상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남북의 접촉지대는, ‘고안된 제약’인 ‘게임의 규칙’의 존재 여부(North, 1996: 13), 즉 ‘제도화/비제도화’의 기준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⁷⁾

위의 분류에 따르면 대북지원은 장소로서는 북한 영토 안이고, 접촉의 제도화의 차원에서 본다면 ‘비제도화’된 접촉 공간이다. 대북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지원의 주체와 대상이 비교적 일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원사업은 불규칙적이고, 남한이 북한 그리고 상호 간에 일정하게 구축된 제도적 틀이 없다는 차원에서 비제도화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접촉지대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이 갖는 성격을 우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⁸⁾

6) 위의 글, 254~255쪽.

7) 위의 글, 258쪽.

첫째,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주로 정부가 중심이 되었고, 일부 사회 문화교류에서 민간단체가 개입하였던 적이 있으나 대북지원은 명실상부하게 민간이 중심이 되는 남북 간 접촉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분단 이후 남북관계에서 시민사회가 전면에서 나서는 첫 번째 계기가 대북지원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⁹⁾

둘째,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었다고는 하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접촉 과정이나 물자 반출 등에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던 까닭에 대북지원 활동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¹⁰⁾ 더욱이 정부와 시민단체의 결합뿐 아니라 의약품 등의 물자 지원에 관련 기업들도 참여함으로써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시민사회 - 기업의 결합이라는 거버넌스 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¹¹⁾

셋째, 총리급 회담과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채택 과정에서 지속적인 남북 간 접촉을 경험하였지만, 대부분의 남북 접촉은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대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8) 대북인도적 지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금순,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4), 17~24쪽 참조.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관련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어린이 어깨동무의 활동 역사를 참고할 수 있다. <http://ksm.or.kr/index.html>; http://www.okfriend.org/about_us?tab=tab_our_way (검색일: 2014년 6월 1일).

9) 대북지원과 정부 민간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경연,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14권 9호(2012), 43~45쪽 참조.

10) 강동완,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2008), 298쪽.

11)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국신, 『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근식,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실태조사』(서울: 통일연구원, 2006) 참조.

면서 동시에 접촉의 형태와 범위도 점차 확산되는 경향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¹²⁾ 지원의 내용도 단순한 긴급구호에서 점차 개발지원적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넷째, 민주화 과정에서 통일운동을 지향했던 단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권위주의 정부의 타도에 있었다. 반면 대북지원이 주축이 되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면서 실질적인 통일 관련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념적인 차원보다는 북한 주민의 상황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통일 과정의 하나로 간주하고 실천적인 차원의 초점을 맞춘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통일운동 조직과 차이가 있다.

다섯째, 이념적인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범위가 넓었다는 점이다. 처음으로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본부’의 경우는 7대 종단이 주축이 되었고, 보수적인 대북관을 견지해왔던 개신교 기반의 대북지원 단체들도 확산되어갔다. 평화교육에 관심 있는 ‘어린이 어깨동무’ 등도 이념 기반의 사회운동단체와는 거리가 있었다.

대북지원의 특성은 접촉지대로서 대북지원 단체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나타나는 접촉지대로서 대북지원사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대북지원 활동으로 다층적인 남북 접촉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접촉뿐만 아니라 보건 지원을 통한 의료인들의 접촉, 병원 등의 구호시설 건축을 위한 건설전문인들의 접촉, 인도적 지원을 후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방북을 통한 보

12) 이우영,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쟁점 및 개선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13권 7호(2011), 81쪽.

통 사람들의 접촉 등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남북 접촉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둘째, 대북지원의 주체가 되었던 NGO의 실무 중심자들은 과거 민주화 투쟁의 경험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던 집단이지만 대북지원 활동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실질적 이해의 정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접촉지대의 질적 차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셋째, 사업의 진행과 확산 과정에서 반복적인 접촉이 이루어졌고, 접촉을 유지하였던 남북의 사람들의 접촉면도 심화되고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업무 중심의 대화에서 시작하여 상대방의 개인사까지 나누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이념이나 가치관 그리고 정서의 부분 등 마음체계 전반이 상호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호 이해가 증진되면서 상대방의 마음체계를 수용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충돌하고 재규정되는 현상을 보였다.

넷째, 대북지원 긴급구호에서 병원 건설, 농업지원, 농기계 제작, 교육지원 등 점진적으로 발전하였고, 과거에 비해서 접촉 양식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법적인 안정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화는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지원단체별로 혹은 지원사업별로 남북 간 접촉이 이루어졌고 일정한 제도의 틀은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대북지원단체들 간의 조직(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이 만들어지고 정부와의 연결도 이루어졌지만 불안정한 수준이었다.

다섯째, 대북지원의 공간은 북한 영토가 중심이었다. 협상을 위한 공간으로 중국 등 제3국이 활용되기는 하였지만 개성공단 개설 이후에는 개성을 주된 협상 장소로 활용하였고, 실질적인 접촉의 공간은

북한 영토였다. 그리고 사업의 진전 과정에서 신의주나 남포 그리고 개성이나 해주 등 지방이 접촉 공간이 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평양이 중심이 되었고, 평양 인근 지역이 해당 지역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접촉 공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비제도화된 접촉 공간의 특성이다.

여섯째, 남북 간의 접촉이라는 차원에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문물을 공여하는 입장과 원조 받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관계의 불균등성을 내포한다. 남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갑’의 입장이며 북한 사람들은 ‘을’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접촉지대의 만남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일곱째, 접촉의 주체가 다양하면서 불균형적이라는 점이다. 남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원 관련 단체의 활동가가 중심이지만, 관련 사업의 전문가들이 접촉의 주체가 된다. 북한의 경우 대남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중심이면서 부분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방북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제한 등으로 접촉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한된다. 반면 북한 쪽 대남사업 종사자나 해당 분야 전문가 외에 일반 주민들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의 접촉은 차별적으로 이루진다.

3. 대북지원에서 마음체계의 상호작용

개별 단체와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지원 활동은 다음 몇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¹³⁾ 첫째, 남한의 지원단체가 대북지원을 결심하고, 통일부에 승인을 얻은 후 북한의 관련 기

관과 접촉을 한다. 둘째, 북한의 대남 관련 실무자들과 남한의 지원단체 실무자 간에 사업 추진과 관련 의견을 조율한다. 셋째, 남한의 지원단체 실무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대남사업 담당자, 사업 현장의 관련 사업 전문가들과 사업을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 남한의 관련 전문가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지원 활동을 후원하는 남한의 일반 주민들이 북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접촉하는 경우가 부정기적으로 존재한다.

공여자와 수혜자의 권력관계가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체계 상호작용의 근본 배경이 되지만, 대북지원 활동의 접촉 공간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원의 필요성에 상관없이 북한에서 특히 대남사업 종사자보다는 정치사업 종사자가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남한 단체 관계자들은 대북지원 활동 자체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물자가 부족한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대외 원조 자체를 자존심과 관련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공여자-수혜자 관계의 상호작용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통합 관련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요소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공존한다.

1) 부정 요인: 갈등 초래

(1) 선입견과 경쟁의식

대북지원 현장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상호작용은 기

13) 이금순,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51~61쪽 참조. 이와 더불어 면접대상자, S1, L2, H1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본적으로 다른 접촉지대의 상호작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분단 이후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⁴⁾ 이와 더불어 상호작용에서 마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애들하고 되게 친한 것 같은데 북한을 들어갈 때 긴장되고, 북한 애들 만날 때 답답하고, 그건 병처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 한마디 하는 거, 재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 의도가 뭘까? 땀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이게 습관화 되어 있는 거예요. 재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럼 난 뭐라고 받아쳐줘야 되지?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뭐지? 음? 내가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 제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열하고, 검증하고, 이러다 보니 북한 애들 이랑 이야기 하는 게 막 편하지만은 않아요. (L1)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도를 계산하고 대응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순수하지 않다는 선입견이 자기 검열로 이어진다. 분단 이후 지속된 남북한 간 갈등과 반복되어온 반공교육은 접촉 공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체제 수준의 남북한 간 적대적 대결관계는 개인 수준의 경쟁의식으로 발전되는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는 마찬가지로이다.

14) 냉전적인 교육과 미디어에서 비롯된 적대의식이 여기에 포함한다.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7권 2호(2013), 140쪽.

서로서로에 대한 어떤 경쟁 라이벌 의식 같은 게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근데 한번 그 친구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선뜻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팀장, 왜? 나 있잖아. 너한테 지구 싶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인식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내가 애를 이겨야지 하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얘기하면 받아치구 받아치구, 내가 얘기하면 그 친구가 받아치구 받아치구, 뭐 이런 것들이 그 친구는 언제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구요. …… (L1)

인도적 지원이라는 사업이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접촉하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작용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한의 상호 불신은 사업을 일정 기간 지속하면서 악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뢰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체제에 대한 불신이나 선입견은 여전히 작동하면서 완전한 신뢰감 형성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북쪽 담당자가 남쪽 실무자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산삼을 건네주었는데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발생한 사례이다.

박스 하나를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 삼 한 뿌리가, 켄지 얼마 안 된 삼 한 뿌리가 잎사귀까지 싱싱한 삼 한 뿌리가 딱 있는 거예요. …… 순간적으로요, 너무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살짝살짝, 녹화되나, 녹음되나, 누가 주변에 없나 …… 북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은 의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 애가 그걸 원하는 거야? 도대체 뭐지? 그러고선 와서 침대 앞에 놓고서는 한참을 고민

해요. 이걸 돌려줘야 되나? 의도가 뭘까? 내가 이걸 먹은 다음에 뭘 요구할까? 저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순수해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 제발 부탁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마라. 그 순간에 제가 되게 창피했어요. 그 친구는 진심이었는데 저는 그 친구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 (L1)

(2) 통제 및 감시의 문제

인도적 지원의 현장에서도 협상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감시와 통제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북한의 경우는 남북관계 전반을 정치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업 현장에도 통상적인 정치적인 감시·통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남한의 경우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소속된 조직의 압력이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난 너를 믿으려고 노력할거다. 근데 나는 너를 믿지만 내가 너를 믿는 거에 비해서 나의 후원자들과 우리 기관은 너를 믿어주지 않아. 내가 우리 기관과 우리 후원자들에게 너를 믿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이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L1)

통제와 감시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신뢰가 축적되고 일정 기간이 흘러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 쪽 감시의 강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¹⁵⁾

15) 북한의 사업 관련 실무자의 교체도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에 참가한 면접자들도(P2, K2, H1, L2)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언급한

여러 가지로, 그 이후는 그 친구가 저한테 살짝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네가 남쪽 사람이나? 네가 ××에 뭐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L1)

감시자의 유무와는 조금 다르지만 접촉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점도 남북한 주민들 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남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의식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솔직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2009년에 제가 중국에서 나와서 북한 의사들 교육을 병원에서 한 적이 있던 시기에 무뚝뚝하고 경계를 하던 북한분이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연수를 마치고 평양에서 만났을 때 사람이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남쪽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원래 임무가 있고 마음을 열기 싫었던 거죠. 근데 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이 바뀐 거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고. 사실 건축 과정 등 그런 일 하면서 사실 많이 친해져요. 많이 친해지게 되면 평소에 몇 십 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 안 하다가도 제3국에서 아무도 없을 때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K1)

감시와 통제의 문제는 접촉하는 사람들의 구성과도 관련된다. 지원사업의 과정에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지원사업에도 정치사업을 하는

바 있다.

사람과 남북관계를 주로 하는 사람과 사업의 실무자들로 참여자가 구성되는데, 실무자들은 특히 내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사람의 감시나 통제를 의식한다. 체제경쟁의식과 결합하여 북한이 뒤떨어진 분야를 인정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능력이나 기술 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책이랑 똑같이 얘기하구. 그게 자기네랑 전혀 다른 얘기인데 책을 보고서 다 외우기 때문에 그게 당장 자기네가 실현되구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자존심엔, 자존심과 뭐 이런 게 부딪히면 와, 아닌 거예요. (L1)

대북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북한의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민화협이나 민경련과 같은 남북관계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반복적인 만남을 통하여 신뢰도 생기고 상호 이해의 폭도 넓어질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접촉 빈도가 낮은 현장 실무자와의 관계는 어렵다.¹⁶⁾

(3) 상대에 대한 지식 부족과 가치 및 언어의 차이

대북지원의 접촉 과정에서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가치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도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초기의 대북지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사회의 개념이 없는 북한 사람들이 민간 그리고 비정치적 접촉 자체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16) U1 증언.

문제는 북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건데, 북한은 이렇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게 뭐인지를 몰랐던 거지요. 북한은 우선 민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지요. 남쪽이라는 게 정치적 차원세계가 관리하고 만나고 그렇게 공작하고 뭐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가 남쪽을 혁명역량을 강화해서 어쨌든 남쪽을 적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개념에서 이걸 출발했었는데 대남 사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서 정식으로 북한을 접촉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어떤 정치적 차원이지요. ‘당신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민간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H1)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남북한의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특정 사업 관련 지식의 차이가 마음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운 요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북지원사업 특히 개발협력적인 차원의 사업에서는 기술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적인 차원의 지식 차이가 문제가 된다.

한의 제약공장 담당자하고 만났을 때도 뭐 묻고 뭐 묻고 하면 그에 대해 답을 못 하지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북쪽은 우리의 60년대 70년대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뭐 거의 2000년대 수준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통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제약 공장이라는 게 있으면 이 제약 공장의 수준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협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S1)

기술적인 차이와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시하는 남북한 참가자들의 가치관의 차이도 장애 요인이 되는데 남쪽은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는 반면, 북쪽의 담당자들은 과시적인 사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된다.

북쪽에서는 우선적으로 크고 멋들어진 거면 돼, 이라는 게 기본적으로구요, 제일 최신식의 설비에 최신식의 기계인 거지요 그러면은 그거 하기 위해서는 북에서는 우선 ‘그 설비가 들어가면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은 있느냐’ 아니면 어떤 기계가 들어가는, 제약공장 같은 경우 ‘공장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전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요. (H1)

대북지원의 공간에서 두드러지는 남북 가치관의 갈등은 여성과 관련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지원 단체에는 여성 실무자들이 다수이나 북한은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고 여성에 활동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있는 반면 남쪽의 여성들은 반발하게 되고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진다.¹⁷⁾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어요 저도 모르구, 그래서 처음에는 면담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막판, 그 신뢰가 쌓이면서 제가 윈스톱으로 처리하고 올 수 있는 것까지 남북 양쪽 시민

17) 2014년 6월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경우 전업 실무자 8명 가운데 여성이 3명, ‘월드비전’은 3명 가운데 1명, ‘어린이어깨동무’는 6명 중 5명,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3명 전원, ‘평화3000’은 4명 중 3명,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7명 중 6명이 여성이다.

단체나 북이 참석했어도 결정권을 줬었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근데 저를 두고 내기를 건 거예요. ‘저 여성동무가 이 험한 일을 언제까지 할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걸 3, 4년 뒤에 얘기를 하더라구요. (Y1)

밥 먹고 또 한 시간을 싸웠어요 근데 그 뭐 갖고 싸웠냐면, 어떤 거냐면 그 60차례 이상 방북을 한 사람도, 저도 그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남잔데, 나이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또 가부장적인 식으로 또 보이죠. (Y1)

상호 간의 지식 부족이나 가치관의 차이와는 별도로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각각의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소통 과정에서 복잡함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우리식의 표현을 그쪽 식의 표현으로, 그쪽 식의 표현을 우리 식의 표현으로 바꾸는 데 둘이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명분을 좀 달라. 내가 예를 들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남쪽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북쪽 식으로 얘기해 줘. (L1)

(4) 대북지원의 특수성: ‘갑을관계’와 남한단체 간 경쟁

접촉지대로서 대북지원원은 지원의 주체로서 남한 그리고 피공여자로서 북한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갑을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존재한다. 제공한 물건의 품질을 둘러싼 논란의 경우인데 남쪽 실무자와 북쪽 담당자가 갈등이 생겼을 때 오간 대화 내용이다

자기가 봤는데 뭐 뜨겁지도 않고 뭐 어찌고저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하자. 날 넣어 달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 말을 안 믿구, 이렇게 내가 직접 봐야 된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Y1)

재네는 제 끼 아니라고, 이거 대충 나른다. 이런 불순이 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그제 암묵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재네 잘 살아서 잘난 척한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쓰던 거를 끼워놓고 오거든요. 연탄에다가, 탄에다가, 뭐 신발도 끼워 놓고 오구 양말도 끼워 놓고 그러고 …… (Y1)

남북한 간 상호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공자로서 남쪽 실무자는 일종의 권리의식을 갖고 있고, 북쪽 사람들은 남한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남측은 이 연탄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연탄공장에 가서 사도 돼. 우린 후원금을 받는 거고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죽어라 열심히 하고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이 돈을 또 소중히 써야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Y1)

제공한 연탄의 문제 원인이 조사 결과 남쪽 제조사의 책임으로 밝혀졌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상호 불신과 절차의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겪게 된다.

물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남한은 ‘갑’의 입장이고 제공을 받은 북한은 ‘을’인 것은 분명하지만 남북 간의 대북 지원은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단일한 주체인 반면 ‘갑’은 주체가 다수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북지원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반대로 ‘을’의 권한이 확대되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두가 감자, 감자,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김정일이 내가 감자 사령관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그니까 민간단체들이 다 감자하겠다고 또 나섭니다. 남쪽의 민간단체들이, 그러면서 이제 과일경쟁이니 뭐니 막 또 여러 가지 남쪽에서의 어려움을 또 겪게 되죠. 북측 애들은 그걸 적절히 이용하구요. (L1)

(5) 남북관계의 변화와 상황인식의 차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사회문화교류도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특히 정부 간 정치적 관계에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남북관계가 전체적으로 좋다면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대북지원 현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방북한 지원단체 담당자의 증언이다.

그냥 밥만 먹고 바로 나가자고 하니까 나갈 수 없다고 싸운 거죠. 세관 앞에서. 그러니까 대놓고 북쪽에서 그런 거죠. 이 암흑과 같은 시기에 너희 단체들이 어떻게 올 수 있었냐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딴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냐 이려고 그러니까 개네들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뭐지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 남한

정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민간단체에 풀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남과 북 정부 모두의 입장이니까. 하여튼 사진 하나 찍는 것 하나도 다 검사하고 찍지 말라하고 실갱이하고. 더 예민했었죠. 그래서 더 어렵다 느꼈죠. (U1)

남북한 간 정세 자체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는 달리 남북관계와 관련된 상황인식 특히 상대방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

북쪽은 잘 진짜 몰라요. 그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거의 한 3년 4년 뭔가 안 된다는 거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끊임없이 이거는 보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걸 보면 그런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U1)

2) 긍정 요인

(1) 시간과 경험 축적

남한의 지원사업 관련자들이 방북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3박 4일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 대북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반복하면서 문제가 해소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의 경우 접촉 시간의 제한은 부정적인 요인이 되어 접촉 당사자 간의 관계 형성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대에 대한 지식이 증진되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면서 참여자들의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신뢰감이 형성되는 토대가 마련된다.

제가 변한 거는 맨 처음에 ‘나 너 못 믿어.’ 근데 ‘지금은 나 너 믿을 수 있어’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건 저의 변화예요. …… 그 친구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북한 체제를 믿진 않아요. (L1)

나름대로 김밥도 싸구요. 닭두 잡구요. 술두 막 중간중간에 이 술, 저 술 막 있는 거구, 어우, 막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더니 가시는 길에 배꽃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 분의 태도가 일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분은 인제는 우리가 얘기하면 귀담아 듣구요. (L1)

시간의 경과와 경험의 축적은 남북한 사람들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체제 자체에 대한 이해도 높여준다.

처음에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나중에는 민간단체가 이런 식의 내용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협력, 협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지요. (S1)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접촉의 차원이 다양화된다. 예를 들어 같이 먹을 수 있는 음료나 떡 등을 나누어 먹으면서 점차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간식을 가지고 방북하여 사업 현장에서 나누어 먹은 후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사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이다.

누가 ‘굿바이’ 이러는 거예요. 정말 큰 소리로, 순간적으로 제가 재

교육 받겠다. 싶은 거예요. 재 끌려가겠다. 그래서 차를 타려다가 다시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 웃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무마시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세관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당 간부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한 50여 명이 있었는데 그 말에, 굿바이라는 말에 어느 누구도 동요가 없었어요. 그니까 모든 거 통일되는 날 하루빨리 만납시다. 또 만납시다. 뭐 이러면서 굿바이 하고 한 사람이 그랬는데,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전 충격이었어요. (Y1)

(2) 참여자의 자세와 이해 능력의 제고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 공간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입장과 자세가 중요하다. 대북지원사업에서는 남쪽 담당자들은 비교적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반면 북쪽 사람들은 교체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반복되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인식을 갖고 있는가는 이해 증진이나 원활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민화협도 사람이 참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어서 뭐 1년…… 다음에 가면 바뀌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오래 했었던 사람들은 지원본부에 대해 잘 알죠.…… 잘 이해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오래 하고 지원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좋은 거죠. 북쪽에서도 참사들의 성향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민간단체 지원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다를 거고 좀 우호적이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죠. 뭐든지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힘들죠. (U1)

제가 담당자로서 책임을 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책임감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어떤 소명의식, 이게 내가, 그니까 소명의식, 저는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북지원에 있어서, 그니까 그 게 종교단체의 포교나 이런 거에 대한 소명의식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시민단체의 실무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소명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Y1)

대북지원의 접촉 공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상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높은 경우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접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 못지않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 능력이 갖추어졌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이를 일종의 ‘해독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비둘기파냐 매파냐에 따라서 감각으로, 얘기를 해보고 감각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에서도 낯설은 거 싫어하지만 우리 활동가도 많이 가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게 매뉴얼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물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 속에서 해독 능력이 돼야 돼요. (Y1)

(3) 대상의 차별성

대북지원의 접촉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상대방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과 노년 간의 차이가

있다.

내가 선생님 수제잡니다. 수제잡니다. 그니까 우리도 너는 이 선생님 수제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니까 그 오래간만에 누가 오면 막 달라붙어 가지구서 뭐 이렇게 막 하듯이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들을 거기다 다 쏟아내는 거예요. (L1)

북한의 노년층은 경쟁의식도 있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남한의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의 획득에 적극적이고 결과적으로 원활한 관계 형성을 맺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다양한 경우, 집단별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건축팀이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의료진들은 장기간 몇 년에 걸쳐 만나니까 서로 다 알아보고 깊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도 많이 보는 편이고 200×년도에는 ××× 지으면서 교육을 한 달 동안 같이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죠. (K1)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남북의 실무자들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표 달성이나 남북관계 및 남북의 내부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반면에 사업 자체의 실무적인 분야 특히 기술 부분 종사자 간은 직업의 동질성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통이나 교류의 폭이 넓다.

(4) 공동 목표의 존재와 논의 주제의 한정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대북지원의 접촉 공간에서 남북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의견 충돌을 겪는다.

요즘에는 현장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요. 오전 오후 다 나눠서, 근데 이제 그렇게 명시를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분위기가 안 좋거나 현장 방문이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서 싸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K1)

그러나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달성해야 하는 공동의 사업 목표가 있고, 이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북한 사람들은 정치적 차원에서 실적을 달성하여야 하고, 남한 사람들은 지원사업을 후원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북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방북의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도 실무적인 합의를 강제한다. 따라서 남이나 북이나 타협점을 찾게 된다.

저희 입장에는 수궁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목적이 이거라면 저희도 세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조율하죠. 왜냐하면 원래는 2시간 있어야 되는데 30분 있다가 나온다던가, 이제 그런 방법적인 걸 찾아가는 편이에요 (K1)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힘든 일까지 시키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이제 반은, 못 만나게 할려구. 근데 우린 아니죠. 우리 얼어 죽겠는데 좀 같이 하자. 힘들어 죽겠다. 이래 가지구 이제 진짜

협상 과정까지 가면서 싸워요. ‘그럴 거면 우리 안 들어온다’부터 시작
해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한 대만
몇 사람 주민들 빼서 한 대에서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Y1)

목표 달성의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이념체계를 토대
로 발전하여온 남북한은 적대적 갈등을 지속한 결과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이 많다. 체제와 이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데 대북지원의 접촉 현장
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갈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
이 된다.

당, 정치, 이런 얘기하지 말고, 대신 교육, 가족 얘긴 해도 된다. 그대
서 이제 나온 게 날씨, 그다음에 자녀 교육문제, 그다음에 가정과 얘기,
요 정도 얘기가 제일 좋아요. 그런 말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Y1)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만 접촉하는 남북한 사람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
한 일상사가 관계 증진을 위한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정치적 환경 변화

정치적 차원의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면 대북지원
의 접촉 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이해 증진이나 관계 변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0년도 정상회담이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사실 민간단체에 방법이나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해졌을 거라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남, 북, 교외 협력에 양이나 질에 이런 부분을 더 넓혀 나가야 된다는 여론이 남쪽에서도 좀 있었고 북쪽에서도 이제 어차피 김정일 차원에서 도 이제 어차피 남쪽의 정상과 만났으니까 남쪽과의 교류 협력을 더 넓혀 나가자, 라는 분위기가 아마 당시는 있었을 거고……. (S1)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화해를 지향하면 대북지원사업 자체를 활성화하는 조건을 형성한다.¹⁸⁾ 그러나 더 나아가 접촉 공간에서 참여하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배 권력의 규정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북한의 주민에게 더욱 영향력이 크다.

(6) 신뢰 있는 중간 매개자의 존재

대북지원 과정은 전문적인 지원단체가 중심이 되고, 사업과 관련된 해당 분야 조직이 결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¹⁹⁾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원단체 실무자들은 대북사업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반면 전문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자들은 북한이나 북한 사람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과의 사업에 경험이 있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적

18) 김민주, “대북지원 NGO 활동의 성장과 정부 재정지원의 상대적 중요도,” 『한국행정연구』, 제21권 제1호(2012), 85~86쪽.

19) 예를 들어 의료지원 사업의 경우는 대북지원단체와 의료나 보건 관련 단체 혹은 기관이 결합하는 양식이다.

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의 방식의 통역이 필요한 거지요. ○○을 소개할 때에 ○○은 대학 교수로 있다. 이렇게 소개를 북한에 했을 때에 북한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대해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할 때에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개를 해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제 오케이, 관심 있다 만나보자 해서 우리가 방문할 때 같이 가 만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지요. (H1)

4. 대북지원 마음체계 상호작용의 특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의 현장은 차별성이 적지 않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접촉 공간이 북한 영토로 제한되고 평양 지역으로 주로 중심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개성, 신의주, 금강산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의료보건 지원 사업, 교육지원 사업, 연료 및 식량 지원사업 등 업종도 다양하고 지원단체별로 사업의 지속 기간이나 참여하는 사람별로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북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로 한 남북관계의 성격도 동일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현장을 경험한 다양한 단체의 사람들의 면접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특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면접조사 결과 나타나는 대북 지원 NGO의 접촉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마음체계 상호작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여자-수혜자 관계에서 비롯되었겠지만, 남한의 우월의식과 북한의 패배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 선입견의 존재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외부로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충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원의 주체인 남한 사람들은 지원활동의 지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력하기 때문이고 북한 사람들은 사업의 성패가 정치적인 책임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여타 인도적 구호 지원 사업에서와는²⁰⁾ 달리 북한 사람들은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특성상 그러하겠지만 남한의 물질적 지원을 민족적 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여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을 표현하기보다는 대등한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나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우월할 물자와 기술 등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둘째, 가치의 차원에서는 남북한 마음의 체계가 비교적 조화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차이와 장기간에 걸친 대결적 남북관계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대북 지원의 출발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에 있었고, 대북지원에는 민족애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지원활동과 관련된 접촉지대의 마음

20) 일반적인 국제원조에 대해서는 정보배·김희강, “국제원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마스 포기(Thomas Pogge)의 논의를 중심으로,” 『오토피아(OGHTOPIA)』, 27권 1호(2012), pp. 72~77; 문경연, “대북지원 딜레마와 극복방안 모색,” 『글로벌정치연구』, 제6권 제1호(2013), 9~10쪽 참조.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0), 34~50쪽 참조.

체계의 상호작용에서 가치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타협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피하려는 남북한 주민들의 노력도 일정한 기여를 한다. 또한 접촉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는 것도 가치관의 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고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남북 간 마음체계 간에 적지 않은 긴장이 조성되었다. 남한 지원단체의 사람들은 남한 주민의 후원(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지향한다. 반면 북한의 실무자들은 관료제의 절차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집단 간의 차별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업의 효과보다는 정치적 정당성을 판단이나 행위의 핵심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이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 단계마다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접촉빈도가 많아지고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나 긴장이 반복되는 것은 효율지향의 사고방식과 명분 우선의 사고방식 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대북지원이라는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의 특성이 비교적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접촉의 대상에 따른 마음체계 상호작용의 양상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사업 전문가보다는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의사 간이나 건설노동자 간의 접촉과 같이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집단 간에는 상호 이해의 폭이 넓고 변화 속도도 빠른 반면, 남과 북의 대화나 협상 실무자들은 갈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경우 노년층과 젊은 층 간 차이가 적지 않다.

다섯째,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북한 지원 활동을 하는 NGO의 경우에도 조직단체 별로 차별성이 적지 않았다. 이것은 남쪽 조직의 특성(단체의 발생론적 특성 혹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의 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시민단체는 대북지원 과정에 원칙의 유지 및 과시가 중요한 반면 대북사업의 성사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쪽 단체의 실무자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정도 그리고 사업 경험도 차별화의 원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접촉이 반복되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체계의 변화에 나타났는데 이것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진보적 의식을 갖고 있거나 과거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집단은 북한의 이념이나 가치에 동조하거나 이해하는 부분은 약화되는 등 가치 부분의 변화가 있는 반면 보수적인 성향의 대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어려운 현실에 동정심을 느끼고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²¹⁾ 북한의 입장에서서는 지원활동을 접하거나 실제로 지원의 대상이 됨으로써 남한 사람이나 남한체제에 대한 적개심이 완화된다는 경향이 있으나 이 경우도 주로 정서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21) 대북지원사업의 과정에는 실무적인 접촉과 별도로 다수의 후원자들을 모집하여 북한의 지원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북 기간에 북한 사람들과 충돌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경향인 사람들이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북한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북한의 현실을 목격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K1, S1 증언. 대북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신교에서도 보수적인 집단이 적극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범진, “한국 개신교의 대북지원 성격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95호(2011), 35쪽.

5. 맺음말

접촉지대로서 대북지원이 갖는 특성은 남북주민들의 마음체계 상호작용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분단 이후 지속된 적대적 대결관계와 체제차이에서 비롯된 마음체계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선입견과 정치적인 차원의 남북관계의 영향력은 대부분의 접촉 공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접촉 지대와는 달리 공동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 목적이 있다는 사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북지원 실무자와 관련 사업 전문가들이 결합되는 접촉 공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접촉은 상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풍부하게 하였고, 충돌과 타협을 반복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동시에 타협을 위한 협상의 기술도 발전시켜 마음체계의 순응에 도움을 주었다. 남한의 참여자들 가운데 과거 민주화 운동 경험자들이 중심이 되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대북사업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집단이었고, 북한의 참여자들은 직업의 차원에서도 지원사업의 성과가 반영되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마음체계가 상호작용에도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층성은 상호작용 차별화의 원인이 되었다.

접촉지대로서 NGO 대북지원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중요한 현상으로 통일 과정 특히 사회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대북지원 공간에서의 마음체계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 과정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지원에 참여한 남북한 주민들을 모두 조사 분석하여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남쪽 참여자들만을 면접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북지원이라는 접촉지대의 북한 주민들을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6월 21일 / 수정: 6월 27일 / 채택: 6월 3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국신, 『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5).
- 김근식,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실태조사』(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이금순,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0).

2) 논문

- 강동완,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권 1호 (2008).
-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8권 1호(2005).
- 김민주, “대북지원 NGO 활동의 성장과 정부 재정지원의 상대적 중요도,” 『한국행정연구』, 21권 1호(2012).
- 김정수,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통일정책연구』, 19권 1호(2010).
- 문경연,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14권 9호(2012).
- _____, “대북지원 딜레마와 극복방안 모색,” 『글로벌정치연구』, 6권 1호 (2013).
- 이범진, “한국 개신교의 대북지원 성격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95호(2011).
- 이상림, “고난의 행군기 이후의 북한 내 인구이동: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통일문제연구』, 25권 2호(2013).
- 이우영,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쟁점 및 개선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13권

7호(2011).

양문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제·사회적 효과,” 『동향과 전망』, 70호 (2007).

양문수·윤철기, “북한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북한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연구를 위한 시론,” 『현대북한연구』, 16권 2호(2013).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7권 2호(2013).

정보배·김희강, “국제원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마스 포기(Thomas Pogge)의 논의를 중심으로,” 『오토피아(UGHTOPIA)』, 27권 1호(2012).

조희연, “수동혁명적 민주화 체제로서의 87년 체제, 복합적 모순, 균열, 전환에 대하여: 87년 체제, 97년 체제, 포스트민주화체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24호(2013).

3) 기타 자료

<http://ksm.or.kr/index.html> (검색일: 2014년 6월 1일).

http://www.okfriend.org/about_us?tab=tab_our_way (검색일: 2014년 6월 1일).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nd Integration of the inter-Korean Mind

Lee, Woo-You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will begin by first examin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humanitarian aid provided to North Korea. Then, after reviewing the qualities of said aid according to contact areas, this paper will focus on using testimonials provided by people who have participated in providing aid to North Korea in order to analyze problems felt by the residents relating to the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differing) mindsets.

From the perspective of an organization providing aid to North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ways of thinking is comprised of the following: First, from the emotional level, an underlying sense of superiority for South Korea and defeat for North Korea exists due to their basic donor-beneficiary relationship.

Second, North and South Korean minds share a relative harmony in terms of values. Third, in terms of ways of thinking, there is a large amount of tension between the minds of North and South Koreans when engaging in business. Fourth, in areas receiving ai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 between the minds of the North and South appear in similar forms.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relatively large difference in some aspects of interaction between minds depending on the target area. Fifth,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NGOs engaged in providing aid to North Korea over a long period of time. Sixth, change in the minds of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takes place in areas of repeated contact. However, this also varies between groups.

It can be argued that, in contact areas, aid to North Korea is causing a fundamental change i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inds of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Both government influence and prejudice originating from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systems and continued hostile relations post-division are commonly occurring phenomenon in a majority of the contact areas. Nevertheles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se of the Koreas and other contact zones are important to acknowledge. Such as: the fact that business objectives exist which require collaboration, the fact that contact has been repea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fact that inter-Korean groups involved in mutual interaction are actively working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the fact that aid workers and business professionals work together in contact areas.

In order to achieve this, a more detailed and in-depth study of the interaction taking place at North Korean aid locations must be analyzed. Furthermore, the process of change must be examined thoroughly. To do this, research must be done on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participating in humanitarian aid operations. Unfortunately, the scope of this thesis only covers testimonies and interviews acquired from participants from South Korea. Therefore, devising an effective method to survey North Korean residents in target contact areas receiving aid is the most important task necessary to further this research.

Keywords: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contact zone, ‘mind system’, NGO aid to North Korea, ‘mind integration’